

# 차 례

## Contents

<b>이슈와 진단</b>	02
•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03
<b>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b>	16
• 허베이성, 관광산업 신동파전략 구축	17
• 장쑤성, 해양경제발전계획 실시	20
• 랴오닝성 선양시, 5대 진흥발전전략 시행	21
• 허베이성 스자좡시, 대기오염 예방퇴치 방안 제시	23
• 산둥성 칭다오시, 민영경제발전계획 실시	25
<b>현대중국의 이해</b>	28
• 국공합작 통일전선과 중공의 대륙정권 획득	29
<b>충청중국포럼 소식</b>	42
• 제17회: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	43
<b>발간목록</b>	46

「이슈와 진단」

#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박인성 · 비웨이닝(畢衛寧)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이번 호 이슈와 진단에서는 서산 대산항의 한중 국제여객선 취항 준비현황과 취항 목적지인 룡옌항(龍眼港) 소재지인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의 현급시(縣級市)인 룡청(榮城)시 개항, 그리고 한중 간 사드문제 갈등으로 인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충남과 서산의 대중국 전략 과제와 대응전략을 검토, 정리했다.

## I. 대산항 한중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진행현황

- 충남도와 서산시는 1991년 국제무역항으로 지정된 서산시 대산항과 중국 산둥성 룡청(榮城)시 룡옌항(龍眼港) 간을 운행하는 국제여객선을 취항시키고자, 룡청(榮城)시와 룡옌항(龍眼港) 그리고 관련 선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서산시 대산항을 충남의 (對)중국 항로의 거점 관문 항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룡청시 등 지방정부와 관련 선사 등과 접촉하며 교섭을 진행해 왔고, 2010년 11월, 제1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서산시 대산항에서 산둥성 웨이하이시 룡옌항 간을 운행하는 항로개설에 합의했고, 이후에도 선종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대산항의 한중 카페리선 취항은, 서해안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중국과 연결하는 해상교통관문 항구가 없었던 충남의 열악한 상황을 돌파하고, 향후 산업, 물류,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대(對)중국 교역·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창출되어 밀려들어오고 있는 발전동력을 흡수하면서, 충남의 신(新)지역발전동력으로 연결하고 확산시켜 나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인천, 평택, 군산 등 국내 서해안지역 항구에서 이미 운행중인 한중 카페리항로 운항 현황을 보면, 후발주자인 대산항의 한중 카페리 국제여객선의 순조로운 운항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 단, 최근에 한중 양국 간에 사드문제가 불거지면서 쌍방 간의 협상에 의해 확정된 국제여객선 취항 계획일시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2016년 8월에 개최된 제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는 원래 검토하던 쾌속선에서 카페리선으로 선종(船種) 변경을 확정하고, 2017년 4월부터 취항하기로 합의했으나, 그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취항일을 올해 7월까지로 늦춰 잡았으나, 최근에 한미가 사드배치를 서두르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그 마저 보류된 상태이다.

- 국제여객선의 항로는 서산시 대산항에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의 현금시인 룡청(榮城)시 룡연항(龍眼港) 간 339km 구간으로, 이는 한-중간 최단거리이다.

운행 소요시간은 편도 약 9시간이며, 주 3-6회 취항 예정이다.

카페리여객선은 2만-2.5만톤급으로 여객정원 1000명, 컨테이너 적재능력 150TEU 이다.

대산항의 관련시설은 여객터미널 1동, 부잔교 등 부두시설 1식 등이다. 여객터미널은 2층 건물로, 대지면적 37,989㎡, 연면적 7,463㎡이고, 주차장 206대와 조경시설(5,714㎡) 등이다.

2013년 12월 30일에 착공하여 29개월간 공정을 거쳐서 2016년 5월 31일에 준공했고, 총사업비는 344억원 투입되었다.

현재 사업주체는 한국측은 영성대룡해운(주)이고, 중국측은 시샤커우(西霞口)그룹이나, 공식 사업자 명칭은 한중 합작법인 설립 시에 정할 예정이다.

- 충남도와 서산시의 국제여객선 취항 추진상황

2010.11 : 정기항로 개설 확정(제18차 한중 해운회담)

2013.4 : 정기여객선 취항을 위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아컨소시엄간 업무협약 체결

2016.5 : 중국 산둥성 방문, 2017년 국제여객선 취항 추진 협의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물시설 준공

2016.8.30-31 : 투입선박을 쾌속선에서 카페리로 변경 결정, 2017년 상반기중 취항 합의

(제24차 한중해운회담, 강원도 양양), 최근에 다시 6-7월경 취항으로 연기됨.

2016.9 : 국제여객선 취항 초기손실보전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 검토작업 시작(진행중)

2016.10 : 해양수산부로 본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작업 시작(진행중), 선박은 초기에는 2만톤급 카페리선을 구입하여 2-3년간 운항하고, 이후 2만5천톤급 선박을 새로 건조하여 운항할 계획임.

## II. 산둥성 웨이하이시 룡청시 개황

- 룡옌항을 관할하고 있는 룡청(榮成)시는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현(縣)급 도시이며 산둥반도 최동단에 있다. 룡청(榮成)이란 지명은 청(淸)나라 옹정(雍正) 황제시기인 1735년에 진시황(秦始皇)이 올랐던 룡청산(榮成山)의 이름에서 따왔다. 룡청시는 서쪽으로는 웨이하이시 환취구(環翠區)와 원딩구(文登區)에 접하고, 여타 지역은 황하이(黃海)와 접하고, 한국 서해안의 인천, 경기도, 충남도와 마주보고 있다.



〈그림 1〉 룡청시 위치도

출처: 구글맵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룡청(榮成)시는 중국대륙중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2개 I급 개방항구인 스다오(石島)항과 룡옌(龍眼)항, 1개 성(省)급 개발구인 룡청(榮成)경제개발구, 1개 성급 공업단지인 룡청공업단지, 2개 성급 관광휴양지인 스다오만(石島灣) 관광휴양지와 룡청백조호(榮成天鵝湖)관광휴양지를 갖추고 있다.

룡청시는 2016년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에 소속된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100강 현급 경제 도시<sup>1)</sup>” 중에서 17위를 차지했고 산둥성 현급 도시 중에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중국 내 매력적인 도시, 우수관광도시, 생태정원도시, 살기 좋은 도시, 환경보호모범도시, 신흥공업도시, 연해개방도시, 해양경제도시, 국가급 해양식품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 룡청시 지형은 서북부에서 동남부로 경사져 있다. 주로 산지, 구릉, 평원으로 구성되며, 구릉 지형의 비중이 약 50.4%로 가장 크다.

1) 중국의 현급 도시는 시할구(市轄區)를 제외하면 약 3000여 개이다.

룽청시 평균해발은 약 25m에 불과하고, 기후는 난온대 계절풍 습윤기후대에 속하고 사계절이 뚜렷하다. 연평균 기온은 약 12℃ 이며 연간 평균 강수량은 약 800mm이다. 산림율이 42.8% 이고 대기질량지수(AQI) 우수(優良)율이 92.9% 이다.

- 현재의 룽청시는 1988년 12월 10일에 룽청현에서 승격한 현급시(縣級市)이다. 춘추(春秋)전국시대 이전에는 래(萊)국에, 춘추전국시대에는 제(齊)국에 속했고, 진(秦)나라 시기에는 제군(齊郡) 창양현(昌陽縣)에 속했다. 남북조(南北朝) 시기 568년부터 청(淸)나라 초기 1734년까지는 원당현(文登縣)에 속했고, 1735년에 룽청현(榮成縣)이 설치됐다. 중화민국 원년(1912)에는 산둥성 교동도(膠東道)에 속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에 산둥성 원당전구(專區: 성(省)과 현(縣)의 중간 행정구역)(1950-56), 라이양(萊陽)전구(1957년), 옌타이(煙台)전구(1958-82), 옌타이시(1983년-86), 웨이하이시(1987-현재)에 속했다.



〈그림 2〉 룽청시 지도

자료: 百度圖片

- 룡청시의 총면적은 약 1526km<sup>2</sup>로 서산시 면적(741km<sup>2</sup>)의 2배를 넘고, 해안선 길이는 약 500km이다. 2016년 거주인구는 약 71.4만 명이다. 행정구역은 10개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우리 동사무소급), 12개 진(鎮: 우리 읍급), 826개 행정촌(行政村), 125개 주민위원회(居委會)로 구성되어 있다.
- 룡청시의 2015년 지역총생산(GRP)은 약 1022.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했고, 웨이하이시 지역총생산액의 34.1%였다. 경제규모는 엔타이 룡커우(龍口)시에 이어 산둥성 현급 도시중 2위, 중국 전국의 3000개 현급 도시 중 17위이다. 전년대비 1차산업은 83.1억 위안으로 4.1% 증가, 2차산업은 474.7억 위안으로 8.2% 증가, 3차산업은 464.4억 위안으로 11.9% 증가했다. 2015년 1·2·3차 산업 비중은 8.1: 46.5: 45.4이다.
- 룡청시 농림축어업 증가치는 83.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 이중 농업, 임업, 축산업과 어업은 각각 14.6억 위안, 0.8억 위안, 7.6억 위안과 60.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4.6%, 0.8%, 2.4%와 4.2% 증가했다. 룡청지역의 복숭아, 고구마, 전복, 녹차, 사과, 성계, 새꼬막, 미역, 앵두, 무화과, 딸기, 해삼 등 17개 상품이 중국국가지리표지농산물 인증을 획득했다. 농업협동조합이 약 1042개에 달하고, 지역 내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은 65개이다.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중 국가급 선두기업 8개, 성(省)급 선두기업 25개, 시(市) 급 선두기업 32개이다.
- 룡청시의 규모이상 공업총산액은 2899.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양생물식품업은 1140.7억 위안으로 4.5% 증가, 조선 및 부품업은 364.0억 위안으로 12.0% 증가, 자동차 및 부품업은 663.5억 위안으로 10.4% 증가했다. 3대 주도산업은 규모이상 공업 중에서 74.8%를 차지했다. 룡청시는 해양식품, 자동차 및 기계, 조선(造船) 등 주도산업, 해양생물과학기술 등 신흥산업, 해변관광, 비즈니스(商貿)물류, 전자상거래, 건강양로(養老) 등 현대서비스를 육성하고 있다. 해양식품산업 규모이상 기업수가 229개 이고 연간매출액이 1200억 위안이다. 중국 최대 냉동조림식품, 미역식품, 해산물통조림식품 생산기지가 되었고 중국 해양식품명품도시와 중국친환경식품도시로 선정됐다.

자동차 및 기업 산업 규모이상 기업수가 80개 이고 연간매출액이 594억 위안이고, 산둥성 정부에 의해 “산둥성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 생산기지”와 “산둥성 전기 수출기지”로 지정되었다.

조선업 규모이상 기업수가 49개이고 연간매출액은 325억 위안이다. 산둥성 정부에 의해 “선박공업 집결구”와 “우수 선박제조생산기지”로 선정되었다. 카페리선과 중량물운반선의 생산량이 각각 중국 국내시장의 70%와 80%에 점유한다.

- 2015년, 룡청시 고정자산투자는 733.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했다. 이중 공업, 3차산업, 부동산개발투자액이 각각 403.8억 위안, 312.2억 위안과 51.0억 위안이다.

- 룡청시는 50개 성(省)급이상 연구개발기구가 있고 21개 첨단기술기업이 있다. 이 가운데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은 34.3%이다.

룡청시는 하얼빈이공대학 룡청대학(哈爾濱理工大學榮成學院), 웨이하이해양직업대학(威海海洋職業學院), 룡청시 제3/제4직업고등학교 등 7개 대학/직업고등학교가 있고 재학생 수가 약 1.5만 명이다. 지역내 전문기술인재가 4.1만 명이고 기능인재가 8.6만명이다. 5개 과학기술인큐베이터와 1개 과학기술창업단지가 있으며 중국해양대학, 중국과학기술연구원 등 60개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 룡청시 무역총액은 29.8억 달러로 전년대비 1.1% 하락했고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22.9억 달러와 6.9억 달러이다.

2015년 룡청시는 154개 국가(지구)와 무역거래를 했다. 수출 지역별로 보면, 한국(34.5%), 일본(17.7%) 등의 순이다. 또한, 중국 수출 농산물 품질안전 시범구로 선정되었다.

-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1.5억 달러로 전년대비 5.7% 하락했다.

2015년까지 외자(外資)기업이 266개이고 이중 한국기업이 110개로 53.2%를 점했다.

- 룡청시는 10개 해만(海灣), 10개의 대형 천연해수욕장과 115개 섬이 있다. 또한, 웨이더산(偉德山)과 티에차산(鐵槎山)과 같은 국가급 산림공원, 청산터우(成山頭) 국가급 해양공원, 백조 국가급 자연보호구, 청산터우(成山頭), 초산 파화위엔(赤山法華院) 등 국가 4A급 관광지구가 있다.



중국의 백조와 핑이갈매기의 고장이라고도 불린다. 성(省)급이상 농업관광시범지구 26개, 관광이 강한 진(鎭) 8개, 특색마을 17개 등이 선정됐다. 중국 레저농업과 향촌(鄉村)관광시범구(縣) 및 중국 전역(全域)관광시범구 칭호를 받았다. 또한, 중국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선정됐다.

- 도농별로 보면, 2015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3.5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했고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8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했다.
- 2014년 12월 칭다오-룽청 간 칭룽(靑榮)도시철도가 개통된 후, 룽청역(榮成站)을 통해 베이징, 상하이, 지난(濟南), 우한(武漢), 시안(西安), 짜오좡(棗莊) 등 중국 여러 도시와 직행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지역내 룽청-네이멍구(內蒙) 우하이(烏海) 간 룽우(榮烏)고속도로, 룽청-간쑤(甘肅) 란저우(蘭州) 간 309국도, 스다오-웨이하이, 스다오-옌타이 등 여러 개의 성급 도로가 종횡으로 교차하고 있고, 스다오항과 룽옌항을 비롯한 10개 항구가 있다.
- 스다오항과 룽옌항은 한국의 인천항, 군산항, 평택항, 대산항(2017년 개통 예정) 등과 국제정기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2015년 항구 화물운송량은 약 2360만 톤이었으며 여객 운송량은 38.4만/회로 산둥성의 36%를 차지했다. 룽청시 도심에서 웨이하이공항까지는 약 20km 거리다.  
룽옌항은 1994년 개항한 중국 유일한 촌(村)급 I급 무역항으로, 동쪽으로 한국 인천항까지 235해리, 서북쪽으로 따렌항까지 110해리, 서남쪽으로 칭다오항까지 190해



〈그림 3〉 룽옌항(좌)과 룽옌항 국제여객터널(우)

자료: 百度圖片

리, 동남쪽으로 일본 나가사키항까지 490해리이다. 항구지구면적은 약 0.37 평방 마일이고 수심이 4.11m이다.

룽옌항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항구이자 한·중 양국 간 여객선과 화물선 중 운항 거리가 가장 짧아, 운항 우세를 가지고 있는 항구이다. 항구의 수출입 화물이 주로 수산물, 규사, 석재, 완성유(成品油), 고무, 양유식품(糧油食品) 등이다. 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룽옌항은 국내외 선박의 보급기지과 수출입 화물 집산지(集散地)로 육성되고 있다.

룽옌항은 시샤코우(西霞口)그룹에 속하고 항구 내 10만㎡ 화물 하치장, 3만㎡ 항구창고, 4만 톤 유류 창고가 있다. 1987년 시샤코우 마을이 시샤코우그룹을 설립하고 마을에서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마을 일체화되어 형성된 중국의 유명한 소강촌(小康村)이다. 시샤코우그룹 산하 35개 회사가 있고 총자산이 60억 위안을 초과했다. 2012년 총 수입은 27억 위안이었고 1인당 순수입은 25.4만 위안에 달했다. 시샤코우그룹은 현재 해산물 양식, 관광레저, 항구운영, 국제해운, 선박 수리와 제조 등 5대 중견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마을 주민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무상으로 의료·식사·주거·생활·교육 등 각종 사회복지를 향유한다. 중국 최초로 마을주민이 각종 무상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4〉 중국내 대표적 소강(小康)수준 모범마을인 시샤코우촌(村)

자료: 百度圖片

〈표 1〉 룡청시 현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중문명	榮成	영문명	Rongcheng
위치	산둥성 최동단	지형 지모	구릉, 산지, 평원
기후	난온대 계절풍습윤기후대	연평균 강수량	800mm
행정등급	현급시	연평균 기온	12℃
소속지구	웨이하이시	인구(2016)	71.4만 명
행정구역	10개 가도판사처, 12개 진	면적	1392km <sup>2</sup>
지역번호	(86)0631	차량번호	魯K
지역총생산(2015)	1022.3억 위안	농림축어업(2015)	83.1억 위안
규모이상 공업총액(2015)	2899.8억 위안	고정자산투자(2015)	733.6억 위안
무역총액(2015)	29.8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2015)	1.5억 달러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2015)	3.5만 위안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2015)	1.8만 위안
방언(方言)	교요관화(膠遼官話)	주요 관광지구	청산터우(成山頭), 츠산(赤山)
기차역	룡청역	항구	스다오항, 룡옌항
현 서기	장산(江山)	현 시장	류창송(劉昌松)

출처: 百度圖片

### III. 현안 과제와 향후 추진방향

#### 1) 사드배치 관련 현안 상황의 이해

- 당면한 최대 문제는 최근에 “사드(THAAD)” 배치문제가 한중 간에 국방 및 외교문제로 불거지면서 원래 쌍방이 합의한 대산항과 중국 산둥성 룡청시 룡옌항 간 국제여객선 취항 개시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2월 27일, 주한 미군과 한국 국방 당국이 경상북도 성주군 롯데그룹 골프장 부지에 사드시스템을 배치한다는 결정을 발표했고, 3월 7일 한미 양국 당국은 사드 배치작업을 시작했다.

한국내 사드배치 작업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중국정부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자국 관광

객의 한국 입국관광 금지 조치 등 경제제재 조치의 강도를 높이고 확대하고 있고, 양국 간의 각종 공식 비공식 교류활동도 보류 및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아군을 향해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100km 이상 최대 150km 고공(高空)에서 요격 분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THAAD”의 첫 문자 T가 의미하는 “terminal”은 탄도미사일의 비행단계(추진, 중간, 종말) 중 미사일이 고(高)고도인 대기권에 진입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즉,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기권 바깥 고공에 달한 시점에 요격하는 방어용 지대공 미사일이다.

걸프전쟁에서 선보인 패트리엇 미사일은 마하 5 이하 속도의 탄두만 요격할 수 있는 데, 북한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마하 14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드 시스템은 2008년부터 미육군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지상 이동 및 공중 수송이 용이하고, 시스템에 포함되는 지상 설치 레이더의 탐색범위는 500~1,800km이고, 미사일 방어 범위는 대략 200km이다.

- 사드배치를 이유로 중국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제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에도 영향과 피해를 주고, 특히, 다른 나라들과 협력 없이 경제제재를 추진한다면 무역 당사국으로서 입는 경제적 손실 외에도, 우리가 제재대상 경제무역관계를 다른 나라로 바꾸게 됨에 따라 손실과 기회비용이 계속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 투자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셋째, 중국은 남한의 전략적 가치가 북한에 못지 않다는 것과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될수록 한국 국민의 반중 감정과 정서를 증대시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한편, 중국은 사드 배치는 주한 미군 방위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이미 중국의 탄도미사일 600기가 한국을 겨냥하고 있고, 러시아판 사드 S-400을 도입하고 있으면서,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에 경제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한계가 있다.

## 2) 지방형 대(對)중국 전략체제 구축과 충남도와 서산시의 과제

-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대(對)중국 교류와 관련사업의 한시적 정체를 충남도와 각 시군 차원의 대(對)중국 전략의 틀을 재점검하고 정비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환황해권 시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역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중앙과 수도권 의존구조에서 탈피하면서, 국민경제권 밖에서 형성·발전하고 있는 ‘소지역경제권’, 즉 중국을 핵심으로 하는 ‘환황해경제권’에서 찾겠다는 전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단,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과 협박으로 경제제재를 행하는 중국의 행위 등에 대한 대비까지 포함하는 대(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방차원에서는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미흡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대산항-산동성 룡연항간 국제여객선 취항 지체 시간을 보다 내실있는 취항 준비작업과 취항 이후 서산시의 대(對)중국 전략에 대한 진단과 정비 추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국제여객선 항로가 없는 상황 돌파라는 측면에만 집중한 결과 취항 이후 국제여객선 운항과 연계한 대(對)중국 전략 마련 측면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등 서해안지역 항구에서 중국의 도시들과 운항중인 국제 카페리 항로가 16개에 달하고, 그중 한중 항로는 인천항과 평택항에 편중되어 있는 바, 후발주자인 대산항의 입장에서 한중간 국제여객선 취항이 된다 해도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과 경쟁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포항의 경우, 2002년과 2005년에 직선거리 600km 거리인 상하이와 국제카페리선을 취항시켰으나, 계속되는 적자 누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 따라서 단위사업별 대응을 지양하고, 충남형 대(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중국내 전략적 파트너지구를 선택하고 집중적인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더욱 적극적

으로 추진해야 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으로,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교역·교류 대상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의 성(省), 시·현 단위 지방에 대해 주요 현황과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이 보유한 비교우위와 능력, 잠재력을 기초로 현안사업과 연결해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기할 수 있는 ‘충남형 대(對)중국 전략’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내 교류대상과 전략적 타깃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현황 및 주요 정책동향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충남의 능력과 동원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중국내 전략적 타깃지역을 단계별로 구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중국의 황보하이(黃渤海) 연해지구 중에서 허베이성(河北省) 산둥성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省)급 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의 주요 현황과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현안사업과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징진지(京津冀)’지구내의 허베이성(河北省)과 20여년간 유지해 온 자매결연관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충남도와 관할 시·군이 기존의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체결 관계를 기초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 온 대(對)중국 교류활동들을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대(對)중국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황하이(黃海) 및 보하이(渤海) 연해지구 도시들과 우호협력 교류협작관계를 구축·활성화 하면서, 이를 통해서 지역발전동력을 창출해 내야 할 것이다.

셋째, 대(對)중국 교류 추진시, 의전과 형식보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시각과 태도가 필요하다. 실리를 위해서라면 의전과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도지사가 스자좡시나 칭다오 등 시급 지방정부의 시장과도 협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스자좡시는 허베이성의 수도이고, 2014년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은 7,561달러이고, 인구가 약 1,061만 명이다. 인구는 충남의 약 5배이고, 행정구역 면적(1만 5848km<sup>2</sup>)은 2배에 달한다.

넷째,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른 기회와 함께 위협 요인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즉, ‘환황해권 시대’라는 ‘큰 흐름’에 적응하면서, 함께 들어오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운동’들을 현장에서 조직하고 상향식으로 활성화시켜나가는 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농혁신,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농수산업 6차산업화 등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충남의 비교우위와 축적된 경험을 대(對)중국 교역 및 교류전략에 효과적으로 연결·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충남의 성공적 정책경험들을 수

출하기 위한 표준화 및 모듈화 작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추진을 주민이 주도하고, 창출된 이익이 지방과 주민에 귀속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홍원표 · 강수현, 2016, 충남 지방공공외교 3.0전략, 충남연구원: 충남, 85
- 박인성, 2016, 환황해권 시대와 충남의 대중국 전략, 충남의 미래 2040, 254~277, 도서출판 그물코: 충남, 288
- 송두범 · 홍원표, 2015,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와 충남의 미래,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미래(충남연구원 개원 20주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5: 13~62
- 이대근, 2004, 세계경제론-글로벌시스템의 형성과 전개, 박영사: 서울, 544
- 榮成市統計局(2016), “2015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榮成市政府([www.rongcheng.gov.cn/](http://www.rongcheng.gov.cn/))
-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
- 互動百科(<http://www.baik.com/>)

#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 ▶ 1. 허베이성, 관광산업 신동파전략 구축
- ▶ 2. 장쑤성, 해양경제발전계획 실시
- ▶ 3. 랴오닝성 선양시, 5대 진흥발전전략 시행
- ▶ 4. 허베이성 스자좡시, 대기오염 예방퇴치 방안 제시
- ▶ 5. 산둥성 칭다오시, 민영경제발전계획 실시

비웨이닝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 1. 허베이성, 관광산업 신돌파전략 구축

- 최근, 허베이정부는 “허베이성 관광산업발전 13차 5개년(2016-2020)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허베이성은 공급측 구조개혁을 중점으로 시행하고 전역(全域)관광을 지향하고, 융합발전을 수단으로 한다.

또한, 중대 프로젝트의 건설을 돌파구로 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산업경영 형식을 구축한다. 공공서비스를 완비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하며, 관광산업화를 추진하고, 징진지(京津冀)관광의 큰 범위에서 “경기복지(京畿福地), 악향하북(樂享河北)”의 관광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관광산업을 국민경제의 전략중점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대성(大省)에서 관광강성(強省)으로” 목표를 실현한다.

2020년까지 허베이성의 관광객수를 8억 명/회로 연평균 15% 증가시키고 관광수익은 1조 위안으로 연평균 25%, 지역총생산에서의 점유비중은 2016년 6.2%에서 2020년 10%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개 신돌파전략은 다음과 같다.

- 구역화(片區化) 발전 추진과 대표 관광지 12개 구축

명품화, 브랜드화를 발전방향으로 지역 내 관광 지구에 대한 통합·승급을 시행하고 관광지의 “관리위원회+관광지+향진(鄉鎮)+기업” 관리·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관광지의 규모화·지역화 발전을 추진하고, 일반적인 관광지구에서 성(省)내 관광 목적지로의 전환을 실현한다.

허베이성 성내 100개 우수 관광지구를 육성할 계획인데, 이 중 22개는 대표적인 선도 관광지, 16개는 새로운 산업경영 방식 관광지, 84개는 지역 우수 관광지로 육성한다.

특히 시바이포(西柏坡)홍색(紅色)관광교육체험구, 정딩(正定)문화관광레저지구, 옌산(燕山)장성(長城)주변관광레저지구, 장자커우(張家口)국제빙설관광레저지구, 바이양디엔(白洋澱)습지온천관광레저지구, 한단(邯鄲)타이항(太行)휴양레저관광지구, 창저우(滄州)운하풍토·인정(人情)문화관광지구 등 12개의 영향력과 선도 효과를 가진 종합적인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성내 관광업의 표준과 시범지구로 조성한다.

- 산업융합발전 추진과 12종 관광 신산업 경영방식 육성

공급측 구조개혁을 기회로 잡고 새로운 수요의 개발, 새로운 공급 혁신, 새로운 동력을 중점 육성하고, 12종 신(新)관광산업 경영방식을 육성·발전시키고, 소비시장에 맞춘 산업

구조와 상품구조를 형성하고, 성내 관광산업의 전형승급(轉型升級)을 추진한다.

레저관광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베이다이하(北戴河)국제관광지, 무란(木蘭)황가(皇家)사냥터관광휴양지, 탕산만(唐山灣)국제관광섬, 징베이(京北)제일초원 등 관광지를 국가급/성(省)급 관광레저지구로 건설한다.

마을관광을 특별히 발전시키고 “양산양환양구(兩山兩環兩區)” 등 중점 지역을 둘러싸고, 타이항산수인가(太行山水人家), 호수습지선가(湖泊濕地船家), 장성문화노가(長城文化老家), 화북전원농가(華北田園農家), 해변섬어가(海濱海島漁家), 바상초원목가(壩上草原牧家) 등 6대 “귀촌(回家)” 브랜드를 육성하고 도시주민 리조트휴가용 “제2정원(第二家園)”을 조성한다.

홍색관광(紅色旅遊)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시바이포(西柏坡)홍색성지(聖地)관광구, 중공129사(師)타이항보루(堡壘)관광구, 허베이성 동부(冀東)리다자오(李大釗)생가관광지, 바오딩(保定)항일영웅관광구 등 6대 홍색관광목적지를 중점적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체육관광, 건강요양관광, 저공(低空)관광, 자가운전관광(自駕遊), 공업관광, 연구학술관광(研學旅遊) 등 다양한 관광 유형을 적극적으로 탐구·발전시킨다.

## ● 아이디어창신 강화와 새로운 관광 프로젝트 건설

13차 5개년(2016-2020) 계획 기간 현존하는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계획의 선도를 통해 프로젝트 건설수준을 제고시키고, 브랜드의 구축을 통해 프로젝트 건설품질을 제고시키고, 융합발전을 통해 프로젝트 건설함의(內涵)를 풍성하게 하고, 다양한 투입을 통해 프로젝트 건설지원(支撐)을 강화하고, 20개 시장 강화력, 브랜드 영향력, 산업추진력을 보유한 강력한 선도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추진한다.

100개 지원 프로젝트를 가속화 건설하고, 1000개 중점 프로젝트를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관광강성(強省)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특히 핵심자원에 기초하여 바상(壩上)국가목장, 베이징신공항국제관광쇼핑타운, 바오딩(保定)바이양디엔(白洋淀)생태세계, 청더(承德)싱룽산(興隆山)관광휴양지 등 전국에서 경쟁력 있는 20개 핵심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 삼망(三網)건설 추진과 관광공공서비스 완비

2020년까지 허베이성 지역내 “쾌여만유(快旅慢游: 빠른 여행, 느린유람)”의 교통망, “편첩락향(便捷樂享: 편하고 빠른 향유)”의 서비스망, “호련호통(互聯互通)의 스마트 관광망을 건설한다.

교통망의 건설이 징진지 ‘한시간 교통권’의 구축 목표를 둘러싸고 징진지의 해륙공(海陸空) 쾌여(快旅: 빠른 여행)교통망을 형성하면서 생태·문화·경치·서비스·창달을 원칙으로 천리타이항(千里太行), 금수장성(錦繡長城), 낭만발하이(浪漫渤海), 베이징 서부 바이두(京西百渡), 운하웅풍(運河雄風) 등 6대 브랜드 경관도로를 건설하고 만유(慢游: 느린 유람) 교통망을 형성한다.

서비스망의 건설은 각종 등급 관광객 집산센터체계, 관광객 서비스센터체계와 자가운전 관광서비스체계의 건설을 촉진한다. 관광지 화장실의 개보수를 추진하고, 4A급 이상 관광지, 관광휴양지, 성내 관광시범구 중에서 60% 이상의 화장실이 AAA급 기준에 도달하게 한다.

스마트관광망의 건설은 “운상하북(云上河北)” 관광데이터 센터와 스마트관광산업 관리플랫폼, 스마트관광 공공서비스 플랫폼, 스마트관광 마케팅연동 플랫폼을 건설하며, 3대 스마트지역, 6대 스마트관광도시, 100개 스마트관광지 등 스마트관광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하나의 중심(一个中心), 3대플랫폼(三大平台), N개응용(N个應用), 다점시범(多点示范)”의 스마트관광체계를 형성한다.

## ● 관광마케팅 창신과 관광브랜드체계 구축

허베이성은 “경기복지(京畿福地), 악향하북(樂享河北)” 브랜드 이미지를 이끌고, 성내 우세와 특색을 부각시키고, 피서(避暑), 빙설(冰雪), 레저(休閒), 홍색(紅色), 마을(鄉村), 장성(長城), 역사 등 7개 하위 브랜드를 만들고 세계급 관광목적지 브랜드 체계를 구축하고, 금수장성(錦繡長城), 장미(壯美: 장대하고 아름다운)태이항(太行), 낭만해변(浪漫海濱), 동계올림픽(冬奧)빙설(冰雪), 초원풍광(草原風光), 연조고적(燕趙古跡), 홍색기억(紅色記憶), 베이징 서부 바이두(京西百渡), 고운운하(古韻運河), 다채경기(多彩京畿) 등 10대 브랜드 주제 코스를 개발한다.

지역간 연합을 통해서 대형 행사, 국내의 유명한 축제를 이끌고 현지 특색 축제를 구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일부 브랜드 관광 축제와 게임(賽事)을 육성한다.

그리고 관광브랜드의 건설을 결합하고, 시장마케팅을 진일보 강화하고 전시 컨벤션 보급, 공중(公衆) 보급, 업계 내 보급, 역계절(反季) 보급, 호동 보급 등 5대 보급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환경마케팅, 사건마케팅, 패션마케팅, 연합마케팅과 스마트마케팅 등 5개 마케팅의 창신을 통해서 징진지(京津冀)시장을 개발하고, 중국 내수시장을 최적화하고, 해외시장을 돌파하고 허베이성 관광산업을 성장시킨다.

- **기제 및 체제 개혁 심화와 관광발전플랫폼 구축**

허베이 관광보장보험 플랫폼을 육성하고 관광전용자금을 이용하며 허베이 관광융자담보 체계를 설립하고 금융자본을 유치하고 관광업에 투입하고, 중점적으로 소형기업(小微企業)과 관광마을의 융자수요를 만족시킨다. 허베이 관광인재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허베이관광핵심브레인, 대학, 전문가, 학자 등으로 구성된 허베이관광 고문단을 설립한다.

## 2. 장쑤성, 해양경제발전계획 실시

- 최근 장쑤정부는 “장쑤성 해양경제발전 13차 5개년(2016–2020)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장쑤성은 기초적인 해양경제 강성(强省)을 건설하고, 해양경제종합수준과 경쟁력을 중국내 선두그룹 위상을 확보하고, 해양총생산액 1조 위안을 달성, 연평균 9%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제발전계획에 따르면, 장쑤성은 “육해통합(陸海統籌), 강해연동(江海聯動), 집약개발(集約開發), 생태우선(生態優先)”의 원칙을 고수하고, 자발적인 국가중대전략을 융합하고, 해양경제공간 배치를 특화 하고자한다.

연해지대와 장강 양안(沿長江兩岸)의 해양경제 발전을 제고하고, 해양산업공간을 특화하고, 항구-산업-도시(港產城)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여 해양 중대 생산력 배치상 새로운 돌파를 실현한다.

- 2020년 장쑤성 경제 중 해양경제의 비중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해양구조를 현저하게 특화하고, 해양공간배치를 더욱 과학적 · 합리적으로 한다.

또한, 현대 해양산업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해양과학기술의 기여도를 제고하고, 해양과학기술 혁신체계를 완비하고, 해양생태보호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해양 공공서비스 체계, 해양종합관리제도를 더욱 완비하고자 한다.

- 장쑤성 지역총생산에서 해양경제 비중을 10%로 늘리고 해양 총생산에서 해양서비스업과 해양신흥산업의 비중을 각각 53%와 20%로 증가시킨다.

근해 수질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좋은(I급, II급) 수질의 비중을 국가근해수질심사방안 기준에 맞추고, 해안선의 보유를 35% 수준에서 유지하고, 성내(省内) 관할 해역중 해양보호구의 비중을 11%에 달하게 한다.

또한, 해양종합관리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완비한다. 해양에 관한 법규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해양종합관리체제 및 기제를 특화한다. 해역·섬·해안지대의 관리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해양 관련 법집행과 감독관리를 통해 해양개발능력 진일보 발전을 보장한다.

### 3. 랴오닝성 선양시, 5대 진흥발전전략 시행

- 2017년 1월 13일 랴오닝성 선양(沈陽)시 15기 시(市)인민대표대회 6차 회의에서 선양시 정부의 “선양 진흥발전전략 계획(초안)” 제안이 심의·통과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선양시는 국제화 전략, 지역 일체화 전략, 도시공간 특화 전략, 산업 다각화 전략, 인재 현대화 전략 등 5대 전략을 실시한다. 선양시의 단기목표는 2020년까지 동북진흥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심도시를 건설하고, 장기목표는 2030년까지 동북아지역의 국제중심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 국제화 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발전전략과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서, 해외진출(走出去)과 외자 도입(引進來) 정책을 통해서 대외개방수준을 제고하고, 국제요소 집결 플랫폼을 건설하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국제화를 실현한다.

- 지역 일체화 전략

도시의 선도 및 파급능력의 제고와 연관된 협력체제<sup>2)</sup>를 혁신하고, 선양경제구(沈陽經濟區) 동일도시권화(同城化)와 일체화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베이징-선양 간의 고속철도

2) 2016년 11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발표한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의 실시와 동북지구 경제와 기업의 안정·발전에 관한 약간 중요한 조치 의견(關於深入推進實施新一輪東北振興戰略加快推動東北地區經濟企穩向好若干重要舉措的意見)” 중에서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3개 성(省)과 장쑤, 저장, 광둥 3개 성, 그리고 선양(沈陽), 따리엔(大連), 창춘(長春) 및 하얼빈(哈爾濱) 4개 도시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선지(深圳) 4개 도시 간 일대일 파트너(對口)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기교육과 공무원 상호파견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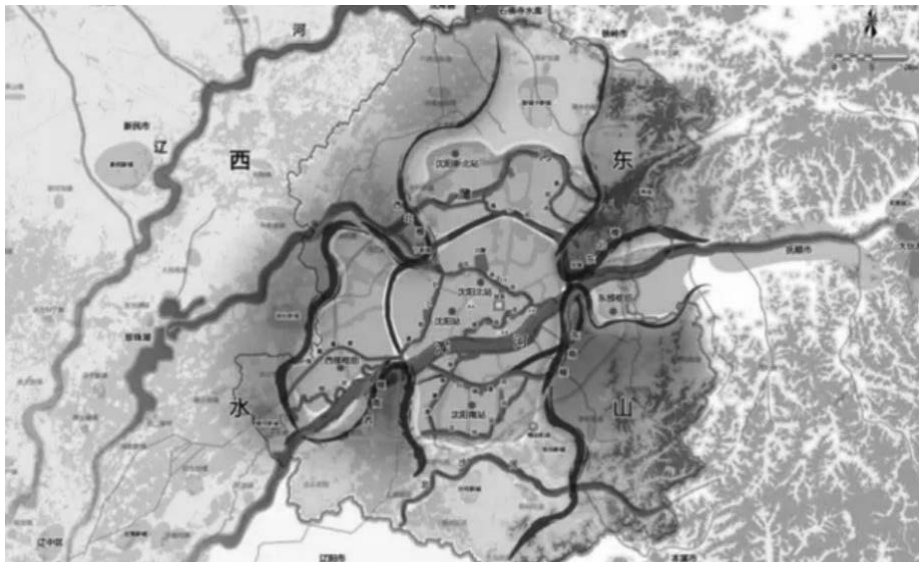
(京沈高鐵), 데링-선양-잉커우 간의 광역철도, 타오셴(桃仙)공항 제2활주로 건설을 촉진하고, 현금 행정구역으로 현지 도시화를 구축하며 신도시, 신진(新鎮), 신촌(新村) 건설을 추진한다.

### ● 도시공간 특화 전략

도시의 정체성(整體性), 체계성과 발전성을 둘러싸고, “동산서수(東山西水), 일하양안(一河兩岸), 일주삼부(一主三副)”의 도시 공간 구조를 구축하고, 각 지역의 합리적 분업, 비교우위를 상호보완하고, 차별화 발전을 실현한다. 교통분야에서 동·서·남·북 복합 통로 건설을 실시하고, 도시도로교통망을 보완하고, 신도시와 구시가 지역 간의 연결을 강화하며, 훈하(渾河) 양안 고속도로와 대교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 산업 다각화 전략

“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및 스마트 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 의약, 에너지절약·환경보호를 비롯한 전략성 신흥산업과 기계, 전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항공장비, 철도 시설, 의약화학공업을 비롯한 전통산업을 병진(并進)하고, 현대서비스업과 전통서비스업을 상호 촉진하며, 정보화와 공업화가 깊은 융합된 산업발전 신구조를 구축한다. 또한,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서 산업의 전형승급(轉型升級)을 실현하고, 도시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업의 급속한 발전을 추진한다.



〈그림 1〉 선양시 공간구조도

출처: 沈陽振興發展戰略規劃(征求意见稿)

#### ● 인재 현대화 전략

사람의 발전능력을 둘러싸고, 사람과 도시 간의 상호 양성 및 발전을 촉진하고, “성경(盛京: 선양의 옛 이름)인재”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완비된 인재집결기제를 형성한다. 또한, 다차원적인 인재 양성체계를 설립하고, 근로자의 취업 기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제고한다.

### 4. 허베이성 스자좡시, 대기오염 예방퇴치 방안 제시

#### ● 허베이성 스자좡시(石家庄市)정부는 2017년 2월 14일 “스자좡시 2017년 대기오염 예방퇴치 업무 방안(石家庄市2017年大气污染防治工作方案)”을 발표했다.

올해 스자좡시는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난방기간(采暖季: 11월-3월) 가정용 석탄 오염의 단속을 통해서 대기오염 해결 등 6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2017년 말까지 지역내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79\mu\text{g}/\text{m}^3$ 로, 전년대비 20.2% 낮추고자 한다.

#### ● 산업구조 조정

지속적으로 철강 생산능력을 감소시킨다. 2017년 말까지 스자좡시의 연철과 시멘트 생산량을 각각 52만 톤과 1000만 톤으로 감소시키고, 도심지구(主城区)의 오염공장 이전을 가속화한다.

철강, 시멘트, 유리, 석재가공 등 8개 업종의 1834개 기업이 스자좡시의 산업정책과 친환경정보배출기준 요구를 맞추지 않으면 바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2007년 이후 철강과 시멘트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기업의 20% 이상이 퇴출되었다.

#### ● 난방기간 가정용 석탄 오염 단속

도심지구의 무석탄화(無煤化)를 추진하고, 2017년 난방기간 이전 스자좡시의 루원구(鹿泉區), 가오청구(藁城區), 환청구(欒城區), 정딩현(正定縣)이 가정용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에서 “청결형 석탄+석탄용 보일러(專用爐具)”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청결형 석탄의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

10월말까지 지역내 10T/h 이하 석탄연소 보일러를 교체하고, 이 중 시내지역 35T/h 이하

석탄연소 보일러를 교체한다. 전면적인 오물방출허가증 제도를 추진하고, 6월말까지 화력발전 업종의 오물방출허가증 발급 업무를, 10월말까지 철강과 시멘트 업종의 오물방출허가증 발급 업무를 완성한다.

### ● 난방 공급 기간 기업 비수기 생산

시멘트, 주조(鑄造), 화학공업 등 770개 업종 기업에 대해“비수기(錯峰)”생산 중지·생산 제한 제도를 실시한다. 필요한 난방 열량에 맞추어서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결정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최대한으로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감소시키고, 화력발전기가 오염물 방출 최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생산을 즉시 중지한다. 철강기업의 유형에 근거한 관리를 실시하고 비수기 생산 중단·제한 방안을 만들고 난방공급기간 철강 생산량을 50% 이내로 제한한다.

### ● 자동차 배출가스 통제

올해 9월말에 지역내 주요한 길목에 10대 고정식 원격 단속 설비와 2대 이동식 원격단속설비를 설치하고, 중점적으로 화물차와 고배출량 가솔린자동차를 선별하여 단속한다. 굴착기, 화물 적재기와 불도저를 비롯한 비도로이동기계(非道路移動機械)는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설치토록 한다.

### ● 건설분진 정비수준 제고

먼지가 날리는 건설 분진(粉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6월말에 규모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온라인 및 영상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다. 야외 광산과 모래밭을 전면적으로 정돈하고, 2017년 말까지 20개 광산을 폐쇄하고 26개 이하 모래밭을 통제한다.

### ● 조림 강도 확대

“1산2환3하(一山二環三河: 1산(一山)은 시산(西山)지역이고, 2환(二環)은 주로 성회(省會: 스자좡시)순환생태림과 성회순환경제림이고, 3하(三河)는 후 토하(滹沱河), 다사하(大沙河), 츠하(磁河)”이다. 녹색통로(綠色通道: 고속도로 양측), 타이항산(太行山)조림, 농촌조림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적합한 경제림을 발전시킨다. 연말까지 인공조림면적 40만ha, 봉산육림(封山育林: 개간·방목·벌채 등을 금지하고 산림 자원을 보호·육성) 면적 30만ha, 녹지면적 1000만㎡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다.





〈그림 2〉 대기오염 예방퇴치 관련 삽화

자료: 百度圖片

## 5. 산둥성 칭다오시, 민영경제발전계획 실시

- 2017년 2월 15일 산둥성 칭다오(靑島)시정부는 “칭다오시 민영경제발전 13차 5개년(2016-2020)계획”을 발표했다. 칭다오시가 중국 국내 대도시와 성(省)내 지(地)급도시 중에서 최초로 민영경제 계획을 제시한 지역으로서 민영경제에 대한 “삼핵 십지(三核十地) · 삼축다점(三軸多点)”의 공간구조를 제시하고, 경영 발전 환경의 최적화를 제고하고, 대중 창업과 민중 혁신을 촉진하고 전역 민영경제의 전형승급(轉型升級)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경제규모분야에서 칭다오시 민영기업수가 40만개에 달하고 연평균 8% 이상 성장하고, 등기자본액은 2조 위안으로 연평균 약 16% 성장하고 민영경제 종사자는 300만 명 이상 돌파하고 민영경제 증가치는 6600억 위안으로 연평균 9% 성장한다.

경제구조 분야에서 민영경제의 1·2·3차 산업 비중은 3: 45: 52로 조정한다. 첨단과학기술과 전략적 신흥산업이 민영경제를 지원한다. 혁신구동(創新驅動)분야에서 민영 과학기술기업의 비중을 연평균 1% 증가시키고, 민영 첨단기술기업수 1700개로 연평균 12% 이상 증가시킨다.

민영기업의 대외무역액은 6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이 중 서비스 무역액은 200억 달러로 연평균 15% 이상 증가, 서비스아웃소싱액은 50억 달러로 연평균 15% 이상 증가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외투자 누적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도급공사 영업액은 연평균 약 5% 증가한다.

### ● 삼핵(三核)

삼핵은 칭다오시 민영경제의 공간적 시야를 열었다. 금융서비스, 현대비즈니스(商貿), 본사(總部)경제, 패션소비, 관광레저와 건강양생, 과학기술정보 및 문화창의(文化創意) 등 영역에서 고급 민영서비스 산업을 전면 발전시키고, 현대서비스업을 특색으로 하는 동안(東岸) 민영경제발전중심(核)을 형성한다.

차세대 정보기술, 해양생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관광레저, 통용항공(通用航空), 문화창의, 해양금융, 생명건강 등 영역에서 해양유형 민영경제를 전면적으로 육성하고, 해양경제를 특색으로 하는 서안(西岸)민영경제발전중심(核)을 형성한다.

홍다오(紅島)지역, 청양구(城陽區), 신공항지역을 전면적으로 통합발전시키고,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해양생물의약, 해양장비연구 및 개발, 첨단장비제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신소재, 건강레저 등 분야에서 민영신흥산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첨단기술산업을 특색으로 하는 북안(北岸)민영경제발전중심(核)을 형성한다.

### ● 십지(十地)

지모(即墨)시, 자오저우(膠州)시, 평두(平度)시, 라이시(萊西)시 4개 도시의 시내 지역과 남색 실리콘밸리 해양과학기술 신도시(藍谷海洋科技城), 동자커우 항구도시(董家口港城), 오산만 신도시(鰲山灣新城), 자오둥국제공항 신도시(膠東國際空港新城) 등 지역을 비롯한 10개 민영경제발전 고지(高地)를 구축하고 비즈니스물류(商貿物流), 자동차부품, 해양생물, 해양공정장비제조, 해양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생태농업, 관광레저, 건강양생, 문화오락 등 민영경제 중점산업을 전면 조성하고, 지역경제발전을 파급·대동하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 ● 삼축(三軸)

빈하이 남색경제 발전지대(濱海藍色經濟發展帶), 옌타이-웨이하이-칭다오 종합발전지대(煙威青綜合發展帶), 지난-웨이팡-칭다오 종합발전지대(濟維青綜合發展帶) 3개축을 바탕으로 청양 지홍탄궤도교통(城陽棘洪灘軌道交通), 지모 룡취안자동차(即墨龍泉汽車), 황다오 동자커우첨단장비(黃島董家口高端裝備), 평두 신허생태화학공업(平度新河生態化工) 등 제조업 기능구와, 라오산만 국제생태건강단지(嶗山灣國際生態健康城), 링산만 영상문화구(靈山灣影視文化區), 리창 교통상무지구(李滄交通商務區), 지모 국제상무단지(即墨國際商貿城), 자오저우만 국제물류단지(膠州灣國際物流園) 등 서비스업 기능구를 중점적으로 조성한다. 3개 경제발전지대 추진을 통해서 칭다오 민영경제의 점진적 추진

과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 ● 다점(多点)

중점적으로 건설한 50개 산업집적구(集聚區)를 둘러싸고 민영경제의 2·3차산업 융합발전을 추진한다. 13차 5개년계획(2016-2020) 기간 10개 신규 민영경제 특색단지를 설립하고, 대동역할을 뚜렷하고 혁신능력이 강한 민영기업을 조성한다. 2020년까지 시급정부가 인정한 소기업 산업단지 100개, 소기업 창업기지 50개, 국가급 소기업 창업창신 시범기지 10개로 육성하고, 소기업과 창업기지의 입주 민영 기업수 7000개 이상, 연간 영업수익 800억 위안, 종사자 12만 명에 달하도록 한다.

### 참고 문헌

- 河北省人民政府辦公廳(2016). “河北省人民政府辦公廳 關於印發河北省旅遊業‘十三五’發展規劃的通知”.
- 江蘇省人民政府辦公廳(2017). “省政府辦公廳關於印發江蘇省“十三五”海洋經濟發展規劃的通知”.
- 2017.1.10. 振興東北網. “沈陽實施五大戰略推進振興發展”. ([http://www.chinaneast.gov.cn/2017-01/10/c\\_135968951.htm](http://www.chinaneast.gov.cn/2017-01/10/c_135968951.htm))
- 2017.1.18. 中新網. “沈陽致力打造海陸空三大樞紐”. (<http://www.ln.chinanews.com/new s/2017/0118/27886.html>)
- 2017.1.14. 第一旅遊網. “《河北省旅遊業“十三五”發展規劃》解讀”. (<http://citynews.topt our.cn/html/2017/01/20170114100413.shtml>)
- 2017.2.16. 河北日報. “石家莊多項舉措治理大氣汙染”. ([http://hbrb.hebnews.cn/html/2017-02/16/content\\_154737.htm](http://hbrb.hebnews.cn/html/2017-02/16/content_154737.htm))
- 2017.2.16. 青島新聞網. “青島民營經濟發展藍圖2020年私營企業超40萬戶”. ([http://finance.qingdaonews.com/content/2017-02/16/content\\_11937857.htm](http://finance.qingdaonews.com/content/2017-02/16/content_11937857.htm))
- 2017.2.17. 中新網. “江蘇出臺海洋經濟發展規劃, 2020年初步建成海洋強省”. (<http://www.chinanews.com/news/2017/0217/168228.html>)

「현대중국의 이해」

## 5. 국공합작 통일전선과 중공의 대륙정권 획득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 1936년 12월 26일, 장쉐량(張學良)이 장제스(蔣介石)와 함께 시안(西安)에서 뤼양(洛陽)을 거쳐서 국민당 정부 소재지인 난징(南京)공항에 도착하면서 사변(西安事變)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10년여 간 지속된 내전은 기본적으로 중지되고, 제2차 국공합작과 일치항일(一致抗日)을 위한 민족통일전선 형성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중공에게는 국민당의 군사적 공격 위협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고 합법적으로 생존하면서 기사회생(起死回生)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중공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안으로는 당과 군의 조직과 사상노선을 정비하고, 밖으로는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군중의 지지를 넓혀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이 일제가 패퇴한 이후 중국대륙의 정권을 놓고 다시 맞붙은 국공내전에서 중공이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반면에 국민당 군대는 일본군과의 정규전에서 연이어 패퇴하고 대도시에서 퇴각하면서 경제 및 군사거점을 잃었고, 정부와 군 간부들의 부패가 심화되면서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 노동자와 시민단체, 민주당파를 포함한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이 국민당으로부터 이탈하게 된 것이 장제스 국민당의 결정적 패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제2차 국공합작 기념품

자료: 百度圖片

## 1) 중일전쟁 발발과 국공합작 항일통일전선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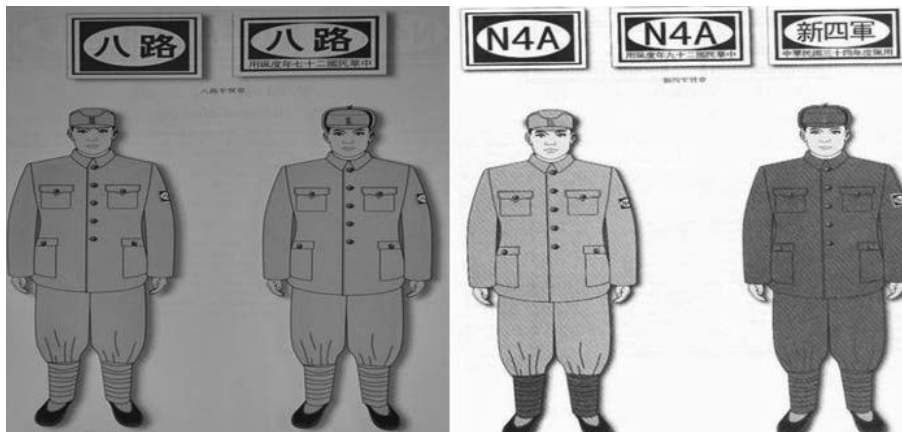
- 1937년 7월 7일 새벽 4시에, 베이징 서남쪽 펑타이(丰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용딩허(永定河) 루거우차오(盧溝橋) 부근의 완핑현(宛平縣) 현성(縣城)에 포격을 가하면서 중일전쟁이 발발했다. 장제스(蔣介石)는 7월 15일에 장시성(江西省)의 루

산(廬山)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등이 중공대표로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에 대한 결연한 항전의지를 담은 루산담화를 발표했다.

- 국공합작에 의한 항일민족통일전선 추진을 위해 중공은 홍군을 국민혁명군 “제8로군(第八路軍)”과 “신4군(新四軍)”으로 개편했다.

1937년 8월 25, 중공중앙혁명군사위원회는 홍군을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하고, 주더(朱德)를 총사령, 팡더화이(彭德懷)를 부총사령으로, 예젠잉(葉劍英)과 주어첸(左權)을 정·부참모장으로, 런비스(任弼時)와 덩샤오핑(鄧小平)을 정치부 정·부주임으로 임명했다. 당시 개편 당시 8로군 병력수는 3개 사단 4.5만명이었다.

1937년 10월 2일, 국민당 당국이 국공 양당 담판을 통한 협의에 근거하여,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장시(江西),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광둥, 푸젠(福建), 저장(浙江) 8개 성(省) 변계에 있는 13개 지구의 홍군유격대를 집중시키면서 “국민혁명군 육군 신편 제4군”(약칭 “新四軍”)으로 개편한다고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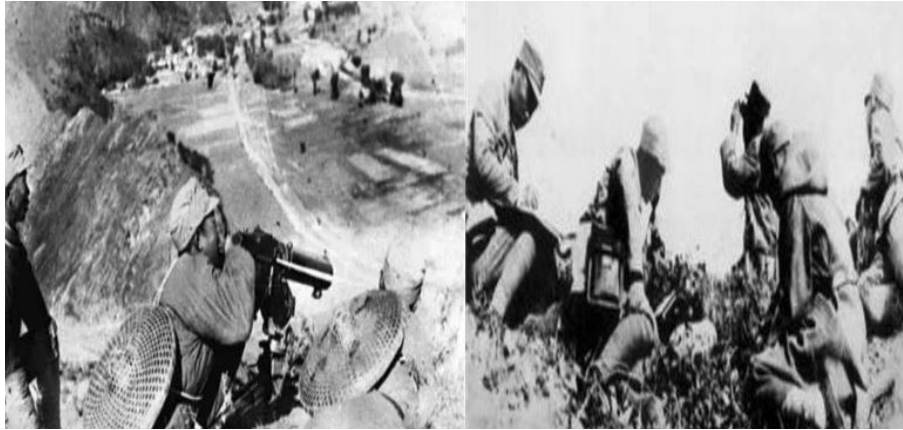
〈그림 2〉 제8로군(좌)과 신4군(우)

자료: 百度圖片

## 2) 핑싱관 전투와 100단 대전

- 8로군이 일본군과 치룬 첫 전투는, 1937년 9월 25일 오전 7시경부터 화북지구 핑싱관(平型關)에서 시작된 “핑싱관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8로군 115사단 사단장 린바오(林彪)는 지형지세를 이용한 매복공격으로 일본군 1천여명을 전멸시켰다. “핑싱관 전투”는 화북지구에서 중국군대가 주동하여 일본정규군을 섬멸한 최초의

승리였으므로 중국 전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림 3〉 핑싱관 전투 장면

자료: 百度圖片

이 전투는 일본군 불패신화를 깨부셨고, 중국 전국의 인민들을 흥분시켰으며 팔로군의 위상을 높였다. 당시 30세의 나이로 이 전투를 지휘한 린바오는 중국 항일전쟁의 영웅이 되었다.

린바오는 1907년 후베이성(湖北省) 황강(黃岡)현 출생으로, 1926년 10월에 황포군관학교 4기생 졸업이후, 광저우에서 국민혁명군 견습 소대장으로 우한(武昌, 현 武漢) 복벌에 참여했고, 1927년 제1차 국공합작이 와해된 후에는 난창봉기(南昌起義), 1928년 후난봉기(湖南起義)에 참가한 후, 주더(朱德)를 따라 징강산(井岡山)에 들어간 후, 전투마다 공을 세우고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1932년 3월에는 25세 나이로 홍1군단 총지휘(군단장)가 되었다. 1934년 10월부터 시작된 중앙홍군의 장정(長征)에서는 초기에 국민당군의 4겹 봉쇄선을 돌파하여 중앙 홍군의 궤멸을 막는 데 공을 세웠고, 이후의 장정과정에서도 츠수이(赤水)전투, 진사장(金沙江), 다두허(大渡河) 도하작전, 루딩차오(瀘定橋) 탈취 등의 극적으로 긴박하게 전개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 홍군의 전투력 보존에 결정적 공을 세웠다.

- 1940년 8월부터 12월초까지 4개월 여 기간에 펑더화이(彭德懷)와 쥬첸(左權)의 지휘 하에 팔로군 129사와 진차지(晉察冀: 山西省, 察哈爾省, 河北省)군구 등 모두 105개 연대(團) 20여만 명의 팔로군 병력이 화북지구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일대의 일본군을 상대로 공격한 “백단대전”은 일본군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고, 중국

군민의 항일전쟁 투쟁의지와 자신감을 증대시켰다는 평가도 있으나, 중공 내부에서는 이 전투로 인해 팔로군의 전력을 노출하여 일본군과 국민당의 경계심을 유발하였고, 이후 일본군의 집중적인 토벌작전이 진행되면서 중공은 항일전쟁기간중 가장 곤란한 시기(1941-1942)를 맞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림 4〉 100단 대전 관련 신문

자료: 百度圖片

1939년 겨울 이래, 일본군은 철도와 도로를 축으로 홍군의 항일유격근거지 소탕작전을 전개하면서, 타이항(太行)근거지와 진차지(晉察冀: 山西省, 察哈爾省, 河北省) 등 전략지구 간 연결을 단절하여 팔로군의 작전공간을 압축하고자, 소위 철도를 기둥(柱)으로 하고, 도로를 사슬(鏈)로 엮고, 토치카(碉堡)를 자물쇠로 하여 잠근다는 “수룡정책(囚籠政策)”을 추진했다.

이에 대응하여 팔로군 총부는 정타이(正太)철도와 통푸로(同蒲路) 복단을 중점 공격, 파괴하기로 결정하고, “정타이로 전투(正太路戰役)”를 발동시켰다. 단, 병력동원과정이 진행되고 전투가 발발한 후에 일본군의 “조룡정책(囚籠政策)” 추진으로 피해를 입고 통한을 품은 팔로군 지휘관과 항일근거지 민중들이 예상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참여규모가 총 105개 단(團)에 20여만 명에 달했다. 당시 팔로군 총부 작전실에서 펑더화이(彭德懷)와 쥬첸(左權)이 이 같은 상황보고를 받고, “좋다, 그러면 이번 전투는 100단 대전이다”고 한 후, 원래의 “정타이 전투(正太戰役)”가 “100단대전(百團大戰)”으로 발전 개칭되었다. 팔로군은 이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모두 1800여회의 전투를 치렀고, 2900여개 거점을 공격 점령했고, 일본군 4만 5천여명을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에 놀란 일본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화북과 화중지역에서 중공 근거지에 대한 소탕작전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팔로군은 1940년 40만에서 1941년 30만으로, 신사군 병력은 13만 5천에서 11만으로 감소되었고, 중공이 장악하고 있던 근거지 및 해방구 면적과 인구도 절반 정도 줄었다.

### 3) 마오쩌둥의 지구전론

- 항일전쟁 발발 후 전쟁의 재난을 몸으로 겪으면서, 모든 중국인들의 관심은 항일전쟁의 앞날이었다. 지구전이나 속결전이나? 중국이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 마오쩌둥은 당시 중국의 항일전쟁의 결과를 예측하는 양극단의 관점인 “망국론”과 “속승론(速勝論)”을 모두 비판하면서 “지구전론”을 제기했다.



〈그림 5〉 마오쩌둥(좌)과 지구전론(우)

자료: 百度圖片

“망국론”은 국민당내의 친일파 왕징웨이(汪精衛)집단으로 이들은 항일전쟁 발발 이전부터, 현재 중국의 무기 등 객관적 전투력으로는 전쟁을 하면 필패이므로 일본에 투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평화를 구걸했다. 한편, “속승론”자들은 영국, 미국, 소련에 의지하여 속승(速勝)을 거두자는 주장으로, 이들중 대부분도 항일전쟁 이전에는 “망국론”을 주장하던 자들이었다.

마오는 1936년 7월 16일, 미국기자 스노와의 대화중에, 그리고 다음 해에 뤼촨(洛川)에서 개최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1937. 8)에서, 항일전쟁의 형세와 전도에 분석과 예측을 바탕

으로, “망국론”은 투항주의, “속승론”은 폐쇄주의라고 비판하면서, 항일전쟁은 전략적으로 버티는 “힘난한 지구전”의 단계이므로 이에 맞는 전쟁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출·발표했다.

이어서 1938년 5월에는 10개월간의 항일전쟁 경험을 총결하고, “항일유격전쟁의 전략문제”와 “지구전을 논한다(論持久戰)”라는 제목의 내용의 강연을 통해 지구전에 의한 항일전쟁 전략 방침을 체계적으로 밝혔다. 마오쩌둥은 다음과 같은 3개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이 전쟁은 반식민지반봉건 상태의 중국과 제국주의 일본간의 20세기 193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결사적 전쟁이다. 이같은 시대적 조건의 기초 위에서 전쟁 당사국 양방간에 상호모순되는 4개의 기본적 특징이 있다. 적은 강하지만 우리는 약하다(敵強我弱), 적은 퇴보하지만, 우리는 진보한다(敵退步我進步), 적은 작지만 우리는 크다(敵小我大), 적은 도움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많다(敵寡助我多助). 이러한 특징이 전쟁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결정할 것이고 지구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

둘째, 일본제국주의를 구축하고, 자유평등한 신중국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필히 인민전쟁 노선을 견지하고, 군중을 동원하고 군중에 의지하여 전쟁을 진행해야 한다. 전민중을 동원해 낼 수 있다면 적을 멸망의 망망대해 속에 묻어 버릴 수 있고, 무기 등의 약세 등 일체의 곤란을 극복할 수 있다. 군대는 필히 민중과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민중이 자신의 편이라 인정하는 군대는 천하무적이다. “망국론”자와 “속승론”자는 물질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는 “유무기론(唯武器論)”자이다. 무기가 전쟁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보다 결정적 요소는 사람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은 사람이 장악하는 것이다.

셋째, 전쟁의 방침과 형식을 규정하고, 항일유격전쟁의 전략적 지위를 논술했다. 전쟁의 제1, 제2 단계에서 팔로군과 신사군의 전쟁방침은, 기본적으로 유격전으로, 단 유리한 조건하에서는 운동전도 고려해야 한다. 전쟁의 형식은 적과 아군 쌍방의 서로 다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중국의 항일유격전쟁은, 크지만 약한 중국이 작지만 강한 일본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전쟁에서 전략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한편, 크지만 약한 중국은 진보하는 시대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필히 주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계획적으로 “방어중에 진공, 지구전중에 속결전, 내선(內線)중에 외선(外線)” 전략방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이 같은 방침을 통해서만 작은 승리를 축적하여 큰 승리로 만들고, 적과 아군의 우위를 변화시키고, 최후의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

#### 4) 일본의 패퇴와 3대 전투의 중공 승리

- 일제가 패퇴한 후, 1946년 6월 26일, 국민당군대가 공산당의 중원해방구(中原解放區) 공격을 시작하면서 제2차 대규모 국공내전이 전면적으로 폭발했다. 항일통일전 선기간중 국민혁명군에 편재되었던 중공의 “팔로군”과 “신사군”은 인민해방군으로 개명되었다. 내전 발발후 약 2년 후인 1948년 7월초에 이르면, 국민당과 공산당 쌍방의 병력은 전쟁폭발시기의 3.14:1에서 1.3:1로 그 차이가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중공이 지휘하는 남방의 유격대의 세력도 급속히 증강되어 1948년 가을경에는 그 병력수가 4만여명에 달했고, 푸젠-광둥-장시성 변경, 광둥-장시-후난성 변경, 하이난다오(海南島), 광둥-광시성 변경, 광시-윈난-구이저우성 변경, 안후이-저장-장시성 변경, 저장성 동부와 남부, 장쑤성 남부 등 곳곳에 유격근거지를 건립하여, 국민당 통치구 후방에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중공이 장악 통치하는 해방구의 면적은 235km<sup>2</sup>, 인구는 1억 7천만에 달했고, 약 1억 인구를 점하는 해방구에서는 이미 토지개혁 개혁을 완료하여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대중의 생산적극성이 사상 유례없이 높았다.

- 1947년 가을까지 국민당군 약 152만명(정규군과 비정규군 모두 포함)이 중공의 인민해방군에 의해 섬멸되었고, 다시 대량의 보충과정을 거쳐서 약 365만명 병력규모(이중 정규군은 285개 여단 198만인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당군 대다수는 신규 보충되었거나 엄중한 타격을 받아서 사기가 매우 낮은 상태였다. 반면에, 중공의 인민해방군은 2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총병력수가 127만명에서 280만명으로 늘었고, 이중 정규군(野戰軍) 병력이 149만명이었다. 총병력수로는 국민당군이 1.3배 정도 되었지만, 인민해방군은 후방이 안정되어 있어서 병력을 전선에 집중시킬 수 있었으나 국민당군은 도처에 산재한 중공 지휘하의 유격대로 인하여 후방이 불안했다. 따라서 제1선에서는 인민해방군의 기동병력이 국민당 군대보다 많았다.

이처럼 군사형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불리해 지면서, 국민당 통치지구내의 중간계층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국민당 통치집단 내부의 모순과 갈등도 더욱 심화되었다. 부총통 리종린(李宗仁)은 장제스의 총통 직위 탈취를 기도했고, 일부 지방의 실력파들이 공산당과의 연결을 강화하거나 시작하면서 투항준비를 시작했다. 또한, 국민당 통치지구의 경제도 붕괴상태가 되면서 장제스(蔣介石)집단은 사면초가(四面楚歌) 형세 속에 놓였다.

중공중앙은 이와 같이 유리한 시기를 포착하여 국민당과 “전략적 결전”을 진행하기로 하고, 1948년 9월 8일, 시바이포(西柏坡)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1947년 3월 중공중앙이 국민당군의 공세를 피해 옌안(延安)을 떠나 후퇴한 이후, 중공중앙이 처음 개최한 정치국 확대회의이고, 항일전쟁이 끝난 이후 회의 참석자가 가장 많은 중앙회의였다.

1948년 9월 시바이포(西柏坡)에서 개최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결정한 소위 “전략적 결전”은 3대전투(三大戰役)로 대표된다. 즉, 1948년 9월부터 1949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중공 인민해방군이 국민당 군대와 벌인 “3대 전투”이다. 이 “3대 전투”에서 인민해방군이 승리하면서 중공이 소위 해방전쟁의 결정적 승기를 잡고, 대륙의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



〈그림 6〉 1948년 9월 중공 정치국 확대회의

자료: 百度圖片

- 1948년 9월, 중공중앙 정치국확대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해 9월 12일부터 1949년 1월 까지 5개월 간 라오닝-선양전투(遼沈戰役), 화이하이(淮海)전투, 베이핑-톈진(平津)전투 “3대 전투(三大戰役)”가 진행되었고, 이 3대 전투가 중공의 승리로 끝나면서 국민당군 주력이 대부분 괴멸되고 장강(長江) 이북 전지역을 중공이 장악하게 되고, 이어서 도강전투를 통해 장강 이남지역으로 진격하면서 대륙의 정권을 중공이 장악하게 된다. 3대 전투(三大戰役)의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라오닝-선양전투(遼沈戰役)

중국 동부 만주지구는 중국 침략 일본군이 가장 먼저 점령한 지구였으므로,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퇴각한 후 만주지구는 국공 양당 군대의 쟁탈 대상이 되었다. 1948년 8월, 인민해방군 동북야전군은 중국 동북부 만주지구에서 97%의 토지와 86%의 인구를 장악하

고 있었다. 국민당군대는 4개 병단(兵團) 14개 군 44개 사단(師) 또는 여단(旅)과 지방보안 단대 합계 약 55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단, 서로 연결되지 않는 선양(沈陽), 장춘(長春), 진저우(錦州) 3개 지구에 분리되어 압박 받고 있었다. 베이징과 랴오닝 성회도시(沈陽)간을 연결하는 베이닝(北寧)철도의 일부 구간을 인민해방군이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창춘(長春), 선양(沈陽)에서 산하이관내(山海關內)로 통하는 육상교통이 단절되었으므로 보급을 모두 항공운수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물자공급이 부족했다.

당시 만주지구는 중국 전국을 통털어 군사력 면에서 인민해방군이 국민당 군대를 초과하는 유일한 지구였다. 따라서 중공중앙 군사위원회는 결전 시작장소를 만주지구로 선택했다. 만주지구의 중요성은 이 지역이 중국내 최고의 중공업발달지역이면서 동시에 최대 식량생산지구로 대표된다.

#### ● 화이하이 전투(1948. 11.6-1949.1.10.)

화이하이 전투(淮海戰役)는 두 번째 전투로서, 쉬저우(徐州)를 중심으로, 동쪽에서는 하이저우(海州)에서 서쪽의 상처우(商丘)까지, 북쪽에서는 린청(臨城, 현재의 薛城)에서 남쪽의 화이하(淮河)까지 광대한 지구에서 진행되었다. 주요 지휘관은 류보청(劉伯承), 천이(陳毅), 덩샤오핑(鄧小平), 쑤위(粟裕), 탄저린(譚震林) 등이다. 중공은 인민해방군은 정규 야전군(官兵) 66만명과 지방무장 40만명을 투입했고, 국민당군 병력은 50만여명이었다.



〈그림 7〉 화이하이 전투 지휘관 단체 사진

자료: 百度圖片

화이하이 전투의 제1단계는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단계에서 화동야전군은 니엔장(碾莊)지구에서 황바이타오(黃百韜) 병단 10만명을 섬멸했다. 중원야전군도 쉬

저우(徐州)를 전략적으로 포위하는 임무에 성공했다. 제2단계 전투는 1948년 11월23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중원야전군과 화동야전군 일부가 쑤현(宿縣) 서남부의 슈양웨이지(雙堆集)지구에서 황웨이(黃維) 병단(兵團) 11만명을 포위 섬멸했다. 화동야전군 주력이 두위밍(杜聿明)이 지휘하는 쑤저우(徐州) 국민당군 3개 병단 25만명이 서쪽으로 포위망을 돌파할 때, 용청(永城) 동북부의 천관좡(陳官莊)지구에서 포위하여 그중 쑤위엔량(孫元良) 병단 약 4만명을 섬멸했다. 제3단계 전투는 12월 15일부터 1949년 1월 10일까지로, 화동야전군이 두위밍(杜聿明)부대에 총공격을 시작하여, 처우칭첸(邱清泉)과 리미(李彌)가 이끄는 두 개의 병단 10개 군 약 20만명을 전부 섬멸했다.

66일간의 화이하이 전투(淮海戰役)를 치루면서 인민해방군은 13만여명의 사상자를 대가로 지불하면서 55.5만명의 국민당 군대를 섬멸하고, 장강(長江) 이북의 화동 및 중원지구를 기본적으로 장악했다. 즉, 장강 이북지구 전역에서 국민당의 통치근거지가 와해되었다.

화이하이 전투는 “3대 전투”중 인민해방군의 희생이 가장 컸고, 섬멸한 적수도 가장 많았고, 정치적 영향도 가장 컸고, 전쟁 양상도 가장 복잡했던 전투(戰役)였다. 이 전투에서 인민해방군이 승리하면서, 국민당의 사기는 심대하게 저하되었으나, 반대로 인민해방군의 역량은 큰폭으로 증가했다.

## ● 베이핑-텐진 전투

베이핑-텐진 전투(平津戰役)는 “3대 전투”중 최후의 전투로서, 1948년 11월 29일에 시작되었다. 1948년 12월 22일부터 인민해방군은 중공중앙 군사위원회의 “우선 양쪽 머리를 치고, 중간을 취한다(先打兩頭, 後取中間)”는 원칙에 따라, 서부 전선(西線)의 신바오안(新保安), 장자커우(張家口)를 선제 공격했고, 동부전선(東線)에서는 1949년 1월 15일, 텐진(天津) 국민당 수비군 13만여명을 모두 섬멸하고 텐진을 접수했다.

인민해방군과 중공 베이핑(北平) 지하당의 공작을 거쳐서, 1월 31일, 푸쭈어이(傅作義)가 지휘하는 국민당 베이핑 수비부대가 중공 인민해방군에 투항하면서 베이핑을 평화적으로 접수하면서 베이핑-텐진 전투(平津戰役)는 끝났다.

64일간의 전투에서, 인민해방군 사상자는 3.9만명, 국민당군대 52만여명이 섬멸되거나 투항했다. 타이위엔(太原), 따통(大同), 신상(新鄉) 등 소수거점지구 외의 화북지구를 중공이 접수했다.

베이핑-텐진 전투(平津戰役)의 지휘자는 린뽀오(林彪), 뤼룽한(羅榮桓), 니에룽전(聶榮臻)이다.



〈그림 8〉 베이핑-톈진 전투 지휘관 단체 사진

자료: 百度圖片

베이핑-톈진 전투의 승리는, 화북지구(華北地區) 대부분을 기본적으로 장악했고, 특히 베이핑(北平)을 평화적으로 접수하면서, 국민당의 사기에 타격을 가해, 이후의 국민당과의 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표 1〉 3대전투(三大戰役) 현황

명칭	시기	위치	지휘자	작전부대	전과	작전방침	영향
遼沈	1948.9-11	만주	린뵤오(林彪), 뤄룽한(羅榮桓)	동북야전군	47만명 섬멸	봉쇄후 각개 섬멸	만주전역 해방
淮海	1948.11-1949.1	쑤저우(徐州) 중심, 隴海철도와 津浦線 철도	류보청(劉伯承), 천이(陳毅), 덩샤오핑 (鄧小平), 쑤위(粟裕), 탄전린(譚震林)	화동야전군, 중 원야전군	55.5만명 섬멸	전력작전, 소수로 다수를 제압(以少勝多)	규모 최대 결전, 장강(長江)이북의 화동 과 중원지구 기 본적으로 장악
平津	1948.11-1949.1	平津	린뵤오, 뤼룽한, 니에룽진(聶榮臻)	동북야전군, 화 북해방군	52만명 섬멸	포위하나 공격은 자제 : 격리하나 포위하지 않고 : 먼저 양쪽 머리를 공격하고, 후에 중간을 취함	기본적으로 화북전역 장악

## 5) 중공의 선전 및 정보전쟁

- 병력 규모와 통치지역의 범위 등 객관적 조건에서 비교도 안될 정도 수준이던 공산당 세력이 국민당과의 경쟁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륙의 정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주요 동력중 하나는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총지휘한 중공의 선전 및 정보전쟁 덕을 봤다고 할 수 있다.

저우언라이가 중공중앙내에서 스파이조직을 지휘하게 된 것은, 1927년 4.12 쿠데타 발생 이후 공산당 조직이 궤멸상태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자, 중공중앙이 지하로 잠입했고, 그 해 5월에 저우언라이를 중앙군사부장에 임명하고 정보보위 조직인 “특무공작과(特務工作科)” 즉 “특과(特科)”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특과”의 최우선 임무는 당시 상하이에 있었던 중공중앙 비밀아지트와 관련인사의 안전보위였다. 국공합작 항일통일전선 시기에 저우언라이는 시안(西安), 우한(武漢), 충칭(重慶) 등 국민당 통치지역에 팔로군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기관을 조직, 운영하면서 국민당의 당과 군 고위관계자들을 친중공 인사로 포섭하고, 곳곳에 정보요원들을 심고 비선조직을 넓혔다.

- 저우와 저우가 발굴해 키운 리커농(李克農)이 포섭하거나 심어 놓은 국민당 주요 부대 지휘관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서북군 집단사령부 후종난(胡宗南)의 부관 송상후이(熊向暉), 중원 집단사령부 바이충시(白崇禧)의 측근 시에허경(謝和庚), 베이징군 구 집단 사령부 푸쭈어이(傅作義)의 비서 옌여우원(閻又問) 등이 있다.

칭화(淸華)대학 졸업생인 송상후이는 글을 잘 썼고, 시에허경도 문체가 뛰어난 작가로 부인이 당시 유명 영화배우였던 왕잉(王瑩)이었다. 이들은 모두 국민당 고위장령으로 국민당 권력층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고급 정보와 군사기밀 등 핵심정보를 소장하게 알고 있었다. 서북군의 경우, 후종남 사령관 외에 군단장이나 사단장도 모르는 정보를 옌안 팔로군 본부의 평터화이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다.

- 중공의 정보 요원중 국민당 통치구역과 핵심조직 내에서 스파이 역할로 결정적인 공을 세운 3인을 “룽탄 3걸(龍潭三傑)”이라 부른다. 이는 “용담호혈(龍潭虎穴)”, 즉 용의 연못(龍潭)과 호랑이 굴(虎穴)처럼 위험한 적진에서 스파이 역할로 공을 세운 리커농(李克農), 첸장페이(錢壯飛), 후디(胡底) 3인을 가리킨다.

리커농은 상하이에서 중공의 정보업무를 지휘했고, 첸장페이는 난징(南京)에서 국민당 요직을 담당하며 활약했고, 후디는 텐진(天津)에서 “장성통신사(長城通訊社)”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활동했다.

저우언라이가 일찍이 이들 3인의 활약을 회고하면서, “용의 연못과 호랑이 굴에 깊이 들어간 이들 3인 “용담3걸”이 없었다면 중국공산당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감개무량하게 회고한 바 있다.





〈그림 9〉 룡탄 3걸

자료: 百度圖片

이외에도, “룡탄 후3걸(龍潭後三傑)”로 불리는 송상후이(熊向暉), 셴지엔(申健), 천중징(陳忠經)이 있고, 타이완 지하당 3걸로 우스(吳石), 주평(朱楓), 천바오창(陳寶倉)이 있다.

-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쫓겨간 후에, 장제스가 군사(軍事)가 아니라 정보에서 저서 본토를 잃었다고 탄식했다고 한다.

#### 참고 문헌

- 조관희(2013), 『중국현대사 강의』, 궁리.  
 현이섭(2012), 『중국지(상,하)』, 인카운터.  
 서진영(1992), 『중국혁명사』, 한울아카데미.  
 賈章旺(2012), 『毛澤東從韶山到中南海(下)』, 中國文史出版社.  
 中共中央黨史研究室(2011), 『中國共產黨歷史第一卷(1921-1949)上冊』, 中共黨史出版社.  
 毛澤東著(1991), 『毛澤東選集第一卷』, 人民出版社.  
 何沁主編(1990), 『中國革命史』, 武漢大學出版社.

「충청중국포럼 소식」

제17회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

- 제17회 충청중국포럼이 1월 18일(수),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배재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고정식 교수의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충남도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한황해팀 김성환 주무관과 서지석 주무관, 아산시 자치행정과 이현우 주무관과 천이화(陳毅華) 중국 광둥성 동관시 공무원(아산시 파견 근무중),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최선묵 대외협력팀장과 곽찬근 주무관, 태안군 기획감사실 최기봉 대외협력팀장과 조현정 주무관, 공주시 시정담당관 전태근 주무관, 보령시 기획감사실 최철구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고정식 교수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60여년의 장기추세 속에서 나타난 버블 수준을 평가하고, 이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중국 주식시장의 버블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진행추세를 전망했다.



〈그림 1〉 고정식 교수 강연 모습

- GDP에서 주식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자본화 지수에 의한 미국 주식시장 버블 발생의 역사적 경험을 평가했을 때 일반적으로 자본화 지수가 ① 50% 미만일 경우 매우 심각한 과소평가 상태, ② 50~75% 구간은 상당한 저평가 상태, ③ 75~90% 구간은 적정 평가 상태, ④ 90~115% 구간은 상당한 과대평가 상태, ⑤ 115% 이상은 매우 심각한 과대평가 상태로 평가한다.

- 1950- 2014년 기간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GDP 비중(자본화지수)을 살펴보면 두 번째 대세 상승구간에 해당하는 1950-1970년 약 20년 기간에는 자본화 지수가 0.4~0.8의 범위에서 변동했다.

이는 두 번째 대세상승 구간으로 미국의 GDP 규모에 비하여 심각한 버블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미국 주식시장은 1985-2000년의 약 15년 동안 대세상승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자본화 지수 변화를 보면 1985년의 0.4에서 1997년 0.9에 도달하게 되고, 1998년 GDP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버블 상태(1.15)를 통과한 이후 2000년에는 매우 심각한 버블상황(1.5)에 도달했다.

그 결과 주식시장 거품붕괴로 이어져서 자본화 지수 0.7수준까지 하락하게 됐다. 이로써 세 번째 대세상승 추세는 마감되고, 다시 장기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구간에 진입했다.

- 중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010년 이후 2014년 중반까지는 4조 달러 내외로 일본의 도쿄 주식시장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4년 중반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미국의 나스닥 시가총액 7.5조 달러 수준을 돌파하고, 2015년 중반에는 10조 달러 규모에 도달했다. 이는 미국 뉴욕 주식시장 시가총액 약 19조 달러에 이르는 두 번째 큰 규모이다.

- 중국 GDP 규모의 확대와 함께 주식시장 규모도 상승추세이다. 특히 2005년 이후 중국의 GDP 상승과 시가총액이 더욱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GDP의 지속적인 상승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식시장은 2007년 전후하여 세계 주식시장과 동조화 현상을 일으켜 큰 버블을 형성하였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대폭락을 경험함으로써 GDP 상승추세를 이탈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 직후에도 중국경제는 안정된 성장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이후 다시 GDP 증가와 비슷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 자본화 지수에 의해서 중국 주식시장의 버블 상태를 평가해보면, 주식시장이 개장된 1990-2006년 기간에는 중국의 자본화 지수는 1995년 5.7, 2000년 48.2, 2005년 17.4 수준으로 GDP의 빠른 상승 속에서도 시가총액이 증가하지 않는 매우 심각

한 저평가 상태였다.

200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122 수준에 도달하여 매우 심각한 버블 상태를 형성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버블은 (서서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거의 1년 정도의 단기간에 형성된 것으로 큰 폭락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중국 주식시장은 급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자본화 지수가 다시 38.3 수준까지 하락했다.

2009-2014년 기간의 자본화 지수를 보면 2009년 70.5로 반등하였다가 2013년 40.6 수준까지 하락했다.

2015년 6월 상당한 고평가 상태에 도달한 중국 증시는 경제성장 하락추세와 경기침체 논쟁 속에서 다시 하락했고, 몇 차례의 대폭락을 경험하는 가운데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고, 시장에 대한 공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자본화 지수는 2016년 2월 5일 기준 60.9 수준으로 하락하여 다시 상당한 저평가 상태에 진입했고, 투자 환경도 다시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 고 교수는, 2016년 2월 현재 중국의 주식시장은 정당한 평가 구간에 다시 진입했으나,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당분간 변동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0조 달러의 중국 경제규모를 고려해 볼 때 2015년 기록한 6.9%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 향후에도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된다면 중국의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GDP 증가추세와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며 움직이는 주식시장은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부동산 버블과 그림자 금융 등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새로운 대세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강연이 끝나고 진행된 토론에서는, 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 홍원표 팀장이 미국 주식시장의 버블 수준을 평가한 자본화 지수 개념과 분석틀을 이용해 중국의 주식시장 버블 수준을 분석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고, 고교수는 중국과 미국 양국 간의 경제규모, 시스템, 인구, 기업문화 등 분야에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보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로가 중국 주식시장의 미래 경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더 높다고 답변했다. 또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송두범 단장, 중국연구팀 박인성 팀장, 농촌농업연구부 박경철 책임연구원 등도 중국 주식시장의 전망과 충남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 및 토론했다.



〈그림 2〉 제17회 충청중국포럼 단체 사진

- 2월 22일(수) 오후 3시부터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서경대학교 구자억 학장님을 모시고 “교육과 해외인재유치를 통한 중국의 발전전략”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 18회 충청중국포럼 소식은 제13호에 실겠습니다.

※ 문의사항: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neong@cni.re.kr, 041-840-1175)



## 발간 목록

###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7.4)

호수	발간월	주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축
제2호	2015년 7월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12월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제11호	2016년 11·12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제12호	2017년 3·4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http://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